



궁·금·함·니·다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의 '전문가 상담코너'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사 양 ●

Q 저희 농장은 현재 이유후 5일기준으로 일찍 발정이 오면 발정온날 기준으로 하루 늦게 수정시키고 있고 5일이 넘을때는 발정온날 오후에 바로 수정시키고 있습니다. 1차 종부후 12시간뒤에 2차 종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태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공수정 시기인지 아니면 사양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심금섭 천안연암대학 축산과 교수>
이유후 모든의 재귀발정 일수에 따라 모든의 발정지속시간 및 배란시간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유후 재귀발정은 평균 5일이 정상적인 형태이고 이유후 5일 이전에 재귀발정이 오는 것은 빠른 형태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유후 재귀발정이 7일 이후에 오는 경우는 늦은 재귀 발정의 형태인데, 재귀발정이 늦게 올수록 발정지속시간은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귀 발정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 인공수정시기 및 인공수정 횟수를 달리하여 바람직한 수태율 및 산자수를 얻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귀발정이 3일 만에 오는것을 기준하여 발정개시후 28시간 후 경과 후 1차 교배를 실시하고 12시

간 간격으로 2차, 3차 교배를 실시합니다. 재귀 발정이 4일만에 오는 경우는 발정개시후 24시간을 경과 후 1차 교배를 실시하고 12시간 간격으로 2차, 3차 교배를 실시합니다. 재귀 발정이 5일만에 온 경우는 발정 개시후 20시간 경과 후 1차 교배 후 12시간 간격으로 2차 교배를 실시합니다. 재귀 발정이 6일만에 온 경우는 발정 개시후 16시간 경과 후 10시간 간격으로 2회 교배를 실시하고 7일째 재귀 발정이 온 경우는 12시간 경과 후 8시간 간격으로 2회 교배실시합니다.

Q 양자보내기에 대해 많은 조언도 들었고 자료도 읽어보았으나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질 못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양자 방법에 대해 요약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컨설팅&클리닉 대표>
그 동안의 많은 이론대로 시도해 보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된다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밤에 상대방의 모돈이 잠들었을 때 자릿깃 등 하라는 대로 묻혀서 하고 둘째, 생시체중에 따라 모돈의 산차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1kg 미만일 경우는 2산 이하의 모돈이어야 유두 크기가 적당하고 체중이 낮은 자돈에 적

당합니다(체중이 낮은 자돈을 유두가 큰 모돈에 붙였을 경우는 거의 실패 합니다). 기타 사항은 현행대로 하시면서 상기 사항을 덧붙여 보시지요.

Q 탈항에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탈항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호흡기 질병에 의해서 기침을 계속하다 보니까 탈항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료섭취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료에 곰팡이 독소가 원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컨설팅&클리닉 대표>
 첫째로 산성의 설사 변이 직장점막을 자극하여 이급후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두번째로 복압의 상승으로 직장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 몸을 포갠 때(열성 질환이나 추울 때) 복압의 상승으로 위와 같은 원리가 되고 곰팡이 독소뿐만 아니라 에스트로젠 농도가 급증하면 이급후증과 직장탈의 원인이 됩니다. 넷째로 돈사 바닥의 경사도가 심하면 골반강의 압력차 문제와 체액이 뒤로 쏠리는 영향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기타 심한 비뇨기질환에 감염되거나 뇨결석 등으로 통증이 심할 때는 후구마비 증상처럼 주저 앉게 되어 탈항(직장탈)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식에 의한 복압 상승시에도 생길 수 있으며, 그럴 땐 육성돈이나 성돈에서 장염전 등으로 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질 병 ● ●

Q 새끼가 젖을 먹지 못하고 말라서 죽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황윤재 금오BPC 상무>
 일단은 무유증이나 저유증의 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많은 원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원인은 모돈에 대한 사료급이의 부실입니다.

임신기간별로 사료 급이량을 섬세하게 조절해 주어야 하는데 정확한 급이량은 현재 쓰고 있는 사료회사에 문의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료급이를 용이하게 조절해 주기 위해서는 각 모돈 별로 현황판에 사료급이 기록을 미리 해주어야 하고 매번 사료급이시마다 이 표와 모돈의 체평점(몸의 상태)을 근거로 사료를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임신 말기에 사료의 과다급이는 분만 후 사료섭취 저하를 가져와서 젖을 줄게 할 수 있습니다. 분만후에도 역시 일자별로 사료량을 계단식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두번째로 어떤 감염증으로 젖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모돈이 사료를 먹지 않고 열이 나고 아픈 경우도 있는데 직장체온을 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열이 있다면 즉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주사하고 포유자돈은 대용유를 액상급이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농장에 폭넓게 나올 때, 아예 모돈이 분만사에 올라오는 날부터 이유할 때까지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먹이고 분만 직후 항생제를 주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약제의 사용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은 후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료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분만사나 임신사의 환경이 너무 나빠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돈**